겸손한 제안

아일랜드에서 빈민의 자녀가 부모나 국가에 짐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아이로 삼기 위하여*

조너선 스위프트

이 나라 대도시를 거닐거나 시골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우울한 대상이 있다. 시가지에 길거리에 오두막집 문간에 우글거리는 여자 거지들이다. 그들은 죄다 누더기를 걸친 어린것들을 서넛씩 대여섯씩 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냥을 바란다. 이 아이 엄마들은 일을 해서 정직하게 먹고살아 갈 길이 없으니, 무력한 어린

* 원제는 A Modest Proposal for Preventing the Children of Poor People in Ireland, from Being a Burden on Their Parents or Country, and for Making Them Beneficial to the Publick(1729)이다. 이 에세이를 읽고 아일랜드 대기근에 관심이 생겼다면, 수전 캠벨 바톨레티가 쓰고 곽명단이 옮긴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돌베개)를 꼭 일독하기 바란다.

것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릴없이 온종일 돌아다니며 구걸한다. 그 어린것들은 막상 자라도 일자리가 없으니 도둑이 되거나, 사랑하는 고국을 등지고 에스파냐로 떠나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는 왕위 요구자의 병사로 싸움터에 나가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바베이도스 섬에서 노예로 살아갈 목숨들이다.

나는 모든 당파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하리라고 본다. 엄마 품에 안기거나 등에 업히고, 아버지나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끔찍스럽게도 많다.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은 현재 개탄스러운 이 왕국에 크나큰 골칫거리를 하나 더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즉 누구든지 이 아이들을 착실하고 유익한 영연방의 구성원으로 삼을 온당하고 값싸고 쉬운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이는 만백성이 기리도록 국가 수호자로서 동상을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젓이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들의 자식만 바치자고 제안할 뜻은 결코 없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길거리에서 자선을 요구하는 거지들만큼이나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특정 연령의 젖먹이까지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나로 말하자면 여러 해 동안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고심했고, 우리네 입안자들이 내놓은 몇 가지 기획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본 사람이다. 나는 그 입안자들이 하나같이 저지른 심대한 계산 착오를 발견했다. 사실 어미 몸에서 갓 떨어져 나온 핏덩이는 1년간 다른 양분을 거의 주지 않고도 어미젖으로만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기껏해야 2실링〔약 2만 원〕이 들 텐데, 그쯤은 아이 엄마가 합법적인 구걸 행위로

얻거나 푼푼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만 한 살 된 아이를 바치자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를테면 부모나 교구에 짐이 되거나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살 바에는 차라리 식량을 제공하고 일부는 의복이 되어 무수한 사람에게 이바지할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내 제안대로 할 때 거둘 수 있는 커다란 이득은 또 있다. 자발적 낙태와 사생아 자식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여인들의 몹쓸 관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엾고 죄 없는 아기를 희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니 애통하도다! 나는 수치심보다 양육비 지출을 기피하려는 마음이 더 크리라는 의심이 없지 않거니와, 제아무리 야만스럽고 비정하다 한들 가슴속으로는 어찌 한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쏜가.

대체로 이 왕국에 사는 사람을 15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나는 그중에서 아내가 번식력이 있는 부부는 약 20만 쌍이 될 것으로 산정한다. 그 20만 쌍에서 친자식을 건사할 능력이 있는 부부 3만 쌍을 빼겠다. 이 왕국의 곤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많을 리 없겠으나 아무튼 그렇다고 치면, 번식력 있는 어미는 17만 명이 남게 된다. 그 17만 명에서 다시 5만 명을 빼겠다. 이 수치는 유산 혹은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을 잃는 어미들이다. 이제 해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12만 명만 남는다. 따라서 문제는, 그 12만 명을 어떻게 키우고 부양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이 왕국의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로는 절

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이다. 이 나라는 그 아이들을 수공업계나 농업계에서 고용할 수도 없고, (시골에다) 집을 짓지도 못하고 땅을 개간할 형편도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섯 살이 될 때까지 도둑질로 목숨을 잇는다는 것도 가당찮다. 실토하건대 예외적으로 아주 일찌감치 기본기를 터득하기에 유리한 고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맘때는 햇병아리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캐번 주를 주름잡는 어느 양상군자가 내게 따져 물으며 알려 준바, 이 왕국에서도 그 기술을 가장 빨리 숙달하기로 짜하게 이름난 그 고장에서조차, 여섯 살 미만은, 자신이 알기로 지금까지 한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네 상업인들이 내게 장담하기를 사내아이든 계집아이든 열두 살 미만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한다. 설령 열두 살이 되어도 일한 대가로 3파운드〔약 65만 원〕나, 많아야 3파운드 반 크라운〔약 7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로 최소 그 네 배를 들여서 그동안 먹이고 입힌 부모나 왕국으로서는 본전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겸허하게 내 소견을 제시하려고 하니 추호라도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런던에서 알고 지낸 아주 박식한 아메리카 사람이 호언장담한 것이 있다. 젖을 잘 먹여 건강하게 키운 한 살짜리 아기는 스튜를 해도, 로스트를 해도, 굽거나 삶아도 아주 맛있고 영양가도 뛰어난 건강식이 된다고 한다. 나는 프리카세 요리나 라구 요리를 해도 손색이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즉 나는 진실로 겸손하게 내 생각을 밝혀 공론에 부치고

자 한다. 내가 앞서 산정한 젖먹이 12만 명 가운데 2만 명은 번식용으로 비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중 남아는 4분의 1이면 족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양, 검정소, 돼지에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여아의 비율이 높다. 내가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이 아이들은 결혼의 결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우리네 야만인들의 안중에 없으니 수컷 하나가 암컷 넷과 능히 교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10만 명은 한 살 때 왕국 전역에 있는 지체 높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내놓는 게 좋겠다. 그 전 마지막 달에는 젖을 충분히 빨리도록 어미들을 항상 일깨워야 한다. 그래야 상을 푸짐하게 차릴 만큼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상품이 될 것이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대접할 때는 아기 한 명으로 요리 두 접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요, 가족끼리 식사할 때면 앞다리나 뒷다리 하나로도 너끈할 것이요, 특히 겨울에는 후추나 소금을 살짝 뿌려 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고아 먹으면 썩 좋을 것이다.

내가 평균적으로 따져 본바, 갓 태어난 아기의 무게는 12파운드〔약 5킬로그램〕이고, 젖을 제법 잘 먹일 경우 1년 뒤에는 28파운드〔약 13킬로그램〕까지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이 식품을 다소 비싸게 팔겠다고 하면 수락하고자 한다. 비싼 만큼 지주들에게 제격이라고 본다. 이미 대다수 부모를 게걸스레 뜯어먹어 온 지주들이야말로 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고 적임자이겠다.

아기 고기는 연중 내내 제철 식품으로 공급되겠지만 3월에는 더

욱 풍성하겠고 3월 전후에도 꽤 넉넉할 것이다. 프랑스의 어느 근엄한 작가이자 저명한 의사께서 밝히기를 생선이 임신에 좋은 음식이라 가톨릭 국가에서는 사순절로부터 아홉 달쯤 지나면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다고 하니, 이 나라 시장들에도 여느 때 없이 아기 고기가 넘쳐 날 것이다. 이 왕국에는 가톨릭교도의 아기가 최소 3배나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제안대로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톨릭교도의 수를 줄이는 부수적인 이득까지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오두막집 거주자와 노동자 전체, 농민의 5분의 4까지 포함하여) 거지의 자식 1인당 한 해 양육비를 누더기 옷값까지 쳐서 약 2실링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맛 좋고 기름진 아기 고깃값으로 10실링〔약 10만 원〕을 내는 데 불평할 신사는 없을 줄로 믿는다. 앞서 밝혔다시피 최고급 영양식 네 접시를 마련할 수 있으니, 아주 특별한 친구를 따로 대접하거나 그 친구를 가족 식사에 초대할 때 이용하면 맞춤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신사로서는 선량한 지주가 되는 법을 익힐 테니 소작농 사이에서 차츰 인망이 높아질 것이요, 아이 엄마로서는 8실링〔약 8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되니 다시 아이를 생산할 때까지 별 탈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백하자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아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기 가죽을 벗겨 쓰면 좋겠다. 그 가죽을 잘 무두질하면 숙녀용 고급 장갑과 멋쟁이 신사들의 여름 부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더블린 시로 말하면, 이 목적에 걸맞은 도살장들을 가장 편리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

큼 도살업자가 부족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기를 산 채로 구입해서 통돼지 구이를 할 때처럼 칼질로 다듬어서 뜨거운 불에 구워 먹기를 권한다.

어느 존귀하고 자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덕성을 갖춘 분께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 제안의 격조를 높일 방안 한 가지를 흔쾌히 제시해 주었다. 이 왕국의 수많은 신사가 최근 들어 사슴의 씨를 말릴 기세로 잡아 대니, 부족한 사슴 고기 대신 열두 살부터 열네 살은 넘기지 않은 소년 소녀의 시신을 공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시골마다 소년 소녀는 수두룩한데 요즘은 일자리도 없고 구호도 받지 못해서 굶어 죽기 딱 좋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피붙이에게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죄송스럽기 그지없으나 나는 매우 탁월한 동료이자 칭송받아 마땅한 그 애국자의 제안에 장단을 맞출 수 없다. 먼저 소년들로 말하자면, 나와 안면이 있는 아메리카인이 숱한 경험을 근거로 내게 큰소리치기를, 그 또래의 소년 고기는 우리네 남학생들처럼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대개 질기고 기름기도 없고 맛도 고약할 뿐더러 그들을 먹기 좋게 살찌우려면 식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녀들에 관해 겸허하게 밝히자면, 나는 소녀들을 그리 써먹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본다. 소녀들은 머지않아 씨암컷이 될 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러 고지식한 사람들은 대뜸 그와 같은 일은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잔혹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실토하자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처럼 잔혹한 일을 하자는 제안에는 나 역시 늘 한사코 반대해 왔다.

그렇더라도 내 동료를 위해 해명을 하자면, 그가 털어놓기를 이 방편을 자기 머릿속에 주입시킨 자가 그 유명한 살마나자르라고 했다. 포르모사 섬〔지금의 타이완〕 원주민으로서 20년 전에 런던으로 왔다는 그자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젊은이가 사형당하면 그 형을 집행한 자가 시신을 최고급 진미 상품으로 지체 높은 분들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 황제 독살 음모를 꾸며 열다섯 살 된 통통한 여자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는데, 처형대에서 곧바로 총리대신과 궁정의 고관대작들에게 나뉘어 팔린 값이 400크라운〔약 2,000만 원〕이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만일 땡전 한 푼 없으면서 가마 없이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 들고,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값비싼 외국산 의복으로 치장하고 극장이며 사교 모임에 드나드는, 이 나라 시골 소녀들을 그런 용도로 쓰겠다면 사실 나로서도 반대할 수 없고, 이 왕국에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러 의기소침한 위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늙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빈민을 두고 노심초사한다. 내 의견들을 채택해 어떤 방침이든 세워서 나라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를 없애기만을 여태껏 갈망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그 문제라면 티끌만큼도 걱정하지 않는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그들은 추위와 기근과 불결한 환경과 병균들 때문에 나날이 죽어 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기대해도 좋을 만큼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낙관해도 좋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야윌 대로 야윈 탓에 설령 어쩌다가 단순 노동에 고용되더라도 일할 기력이 없다. 따라서 이 나라도 그들 자신도 앞으로 닥칠 악폐로부터 구제되는 행운을 누릴 것이다.

긴 사설은 이만 접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내 제안으로써 얻게 될 이득은 막중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도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서 내가 언급했듯이 가톨릭교도의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으뜸가는 번식력을 가진 족속이라 이 나라는 매년 가톨릭교도로 들끓는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이 왕국을 왕위 요구자에게 넘겨줄 속셈으로 고국에 남아 있는 자들이며, 양심을 저버리고 성공회 성직자에게 십일조를 바치느니 차라리 고국을 등지는 길을 선택한 선량한 신교도들이 줄줄이 떠난 기회를 틈타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다.

둘째, 가난에 허덕이는 소작농들도 유용한 자산을 갖게 될 것이다. 그로써 법으로 압류된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겠고, 곡물과 가축을 이미 강탈당하고 돈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도 모르는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두 살을 넘긴 아이 10만 명의 부양비를 아무리 낮잡아도 1인당 연간 10실링은 되는 만큼, 국가 자산이 연간 5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입맛이 고상하고 재산이 많은, 이 왕국의 모든

신사들 식탁에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이득도 볼 것이다. 또한 이 나라 백성들 사이에 현금이 유통되어 순전히 우리 손으로 재배하고 만든 제품들을 사고파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넷째, 부단히 번식을 하는 자들은 자식을 팔아 연간 8실링의 소득을 올릴 것이며, 아울러 첫 해 이후로는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 식품은 또한 주막에 귀한 손님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주막 주인들은 이 식품을 완벽하게 요리할 최고 조리법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인바, 미식가로서 일가견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세련된 신사들은 너나없이 주막에 잦은걸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단골손님의 환심을 사는 법을 잘 아는 노련한 요리사는 값을 마음껏 불러도 좋을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궁리할 것이다.

여섯째, 이 제안은 훌륭한 결혼 유인책이 될 것이다. 결혼은 슬기로운 민족이라면 모두가 보상으로써 장려하거나 법률과 형벌로써 강제해 온 제도이다. 만일 그 가련한 아기들을 바침으로써 만백성이 양육비를 들이기보다는 얼마간 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활 보장책이라는 확신이 들면 자식들을 정성껏 돌보는 엄마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는 가장 살찐 아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결혼한 여성들끼리 정당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남편들은 이제 임신한 아내를, 망아지를 밴 암말이나 송아지를 밴 암소나 곧 새끼를 낳을 암퇘지처럼 애지중지할 것이다. 유산할까 두려워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아내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짓은 그만둘 것

이다.

그 밖에도 꼽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 예컨대 이 땅에서 통에 담아 수출하는 쇠고기의 물량이 몇천 마리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네 식탁에 빈번하게 올라서 대량 도축한 탓에 턱없이 모자란 돼지고기 대신 돼지고기와 같은 살코기를 널리 보급하게 되고 베이컨 제조 기술도 향상될 것이다. 토실토실하게 잘 키운 일년생 아기는 맛으로 보나 기품으로 보나 돼지고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하므로, 더블린 시장이 베푸는 연회나 기타 사교 모임에서 아기 통구이를 대접하면 성대함의 상징이 될 것이다. 간결하게 쓰려고 애쓰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비롯한 많은 이득에 관해서는 생략한다.

이 도시에 사는 1,000세대가 아기 고기의 고정 단골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웃고 즐기는 잔치, 특히 결혼식과 세례식에서 아기 고기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내 계산으로는 더블린에서 먹어 치우는 아기 고기는 연간 2만 마리쯤 될 것이다. 나머지 8만 마리는 (아마도 다소 싸게 팔릴) 이 왕국의 나머지 지역에서 동날 것이다.

이 왕국의 인구를 대폭 감소할 방안이라며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내 제안에 반대하며 목소리 높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내 생각을 거침없이, 그야말로 만천하에 밝히기로 작심한 주된 이유였다. 독자들은 부디 주의하기 바란다. 내가 이 구제법을 생각해 낸 것은 단 한 나라, 오직 아일랜드 왕국을 위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있었거나 있거나 앞으로 있을지 모를 그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하니 어

느 누구도 다른 방편들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시라. 예컨대 우리네 부재지주에게 수확량 1파운드에 세금 5실링씩 매기기, 옷도 가재도구도 우리 손으로 재배하고 만든 제품만 사용하기,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외국산 물건과 도구를 철저히 배격하기, 분수에 넘치는 자만과 허영과 게으름과 도박에 빠진 이 나라 여인들 교정하기, 검약하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절제하는 풍조 조성하기, 라플란드 인과 투피남바[지금의 브라질에 속한 지역]의 원주민보다 못한 애국심 가르치기, 적대감과 당파심을 버리고 아울러 자기네 도시를 점령당한 순간에도 서로 죽였던 유대인 같은 행동을 그만두기, 나라와 양심을 헛되이 팔아먹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소작농에게 하다못해 한 가닥 자비심이라도 베풀도록 지주들 일깨우기 같은 방편들은 들먹이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우리네 상인들에게 정직성과 근면성과 분별력을 심어 주는 방편도 꺼내지 마시라. 만일 우리가 국산품만 구매하자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하면 그들은 당장 똘똘 뭉쳐 가격과 분량과 품질을 속여 강매할 자들이다. 그뿐 아니라 공정하게 거래하라고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도 그 무던한 제안조차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거듭 당부하거니와 누구든 위와 같은 방편과 그 유사한 얘기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시라. 정 하려거든 최소한 그런 방편들을 성심성의껏 실행에 옮기려고 애쓸 것이라는 희망이 어렴풋이나마 생길 때 하시라.

나로 말하면 숱한 세월 동안 헛되고 한심하고 몽상에 지나지 않는 생각들을 제안하다가 기진맥진했고, 마침내는 가망 없다고 완전

히 체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안이 갑작스럽게 떠올랐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고, 알차고 현실성이 있으며,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고 그다지 고생스럽지도 않으며, 이 문제로 영국의 심기를 건드려 우리가 화를 입을 위험도 전혀 없다. 이런 종류의 상품은 육질이 너무 연해서 장시간 소금에 절이게 하더라도 품질 유지가 어려워서 수출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도 기꺼이 우리네 백성을 모조리 다 먹어 치울 나라의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기는 하다.

아무튼 나는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다. 현명한 분들이 나처럼 사심 없이 값싸고 쉽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면 어떤 제안이든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계획에 반박하면서 더 훌륭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단독이든 여럿이든 그 제안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헤아려 보기를 정중하게 부탁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만 명의 배를 채울 식량과 등을 따뜻하게 해 줄 의복을 과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둘째, 현재 이 왕국의 방방곡곡에 인간 형상을 한 짐승 같은 자들이 대략 100만 명이 있는데 공유 자산을 들여 그들을 모두 먹여 살리자면 200만 파운드[약 4,000억 원]의 빚을 안게 된다. 게다가 버젓이 구걸을 일삼는 거지들과 사실상 거지와 다름없는 무수히 많은 농민들, 오두막집 거주자들, 노동자들과 거기 딸린 처자식들까지 있다. 내 제안이 혐오스러워 혹여 과감하게 해결책을 모색할지 모를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부디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들의 부모들에게 먼저 물어보시

라.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처방대로 한 살 때 식품으로 팔린 것이 대단한 행복이 아니었겠는지. 그랬다면 끊임없이 이어진 불행한 상황들, 가령 돈도 없고 돈벌이도 없어서 소작료를 내지 못해 지주의 핍박에 시달린다든지, 입에 풀칠도 못하고 모진 날씨를 막아 줄 집은커녕 옷도 없이 비천한 목숨을 이어 간다든지 하는 일들을 모면하지 않았겠는지. 또한 자신과 똑같이, 아니 훨씬 더 큰 고통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새끼들의 앞날도 있을 까닭이 없지 않겠는지.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얻을 사익은 조금도 없다. 내 목적은 오로지 상업을 발전시키고, 젖먹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빈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부자들에게 얼마간 쾌락을 맛보게 함으로써 내 나라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뿐이다. 나는 어린 자식이 없다. 적어도 내 제안대로 할 때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아이는 없다. 내 막냇자식은 아홉 살이고, 내 아내는 임신할 나이를 넘겼다.

곽명단 옮김